



발간자료

• **의료기기/화장품(Overweight):** 수출·인바운드 노출 높은 기업 중심 실적 호조 지속,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업종에 대한 선호도 및 투자 비중 확대 권고. 7월 특산·필러·화장품 수출 MoM 성장 지속. 8/11 수출·의료관광 데이터가 3Q 모멘텀 관건. 최선호주: 파마리서치(TP 55만원)·휴젤(TP 43만원)·에이피알(TP 56만원)·달바글로벌(TP 34만원)

(화장품/의료기기 박종현)

• **제약/바이오(Overweight):** 7월 바이오시밀러 처방 전반적으로 부진. Inflectra(CELL) 30%대 점유율 유지. Truxima(CELL)는 Ruxience 대비 점유율 우위 유지. Vegzelma(CELL)은 주요 PBM사 포물러리 등재효과가 본격 반영되지 않아 단기 변동성. Byooviz(SB)는 파트너사 변경 이후 재출시되며 시장 재진입 확인

(제약/바이오 이지수)

• **파마리서치_BUY/55만원:** 2Q26P 매출 1,787억(YoY +27%), 영업이익 665억(YoY +19%)로 컨센서스 부합. 화장품 수출(YoY +124%)이 의료기기 수출을 첫 추월, 미국·유럽 중심 고성장 지속. 3Q 일회성 비용 소멸 및 유럽 리쥬란 성장 기대. 수출 추정치 상향하며 TP 55만원으로 상향

(화장품/의료기기 박종현)

• **씨젠_BUY/4.7만원:** 2Q26 영업이익 컨센서스 18% 상회, HPV(+40%)·중남미/아시아 고성장 견인. 국가 HPV 스크리닝 편입 확대로 구조적 성장 지속 및 4Q 계절성 효과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. 2Q26 주당 300원 분기배당 전망 및 4Q26E 특별배당 여지 유효. 자사주 소각 결의 가능성 또한 주목

(화장품/의료기기 박종현)

• **인터로조_Not Rated:** 2Q26 일본향 렌즈 선적 지연으로 매출 부진했으나, 수출 개선으로 OPM 20.3% 방어. 3Q 이연 물량 반영으로 매출 +33% QoQ, 영업이익 +57% QoQ 전망. 일본 최고정 렌즈 정상화-B2C 사업 확장 확인 시 기업가치 회복 기대

(화장품/의료기기 박종현)

• **NAVER_BUY/40만원:** 2Q26 매출액 3조 3,888억원(+16.2% YoY)로 컨센서스 부합, 프로모션·단말기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하회. 네이버 플랫폼 서비스(+31% YoY)·C2C(+75% YoY) 고성장 지속, 포시마크·소다 등 글로벌 C2C 성장 견인. 단기 비용 부담에도 AI DC 매출 2Q27 본격화 기대하며 인터넷 산업 Top-Pick 유지
(인터넷/게임/레저 김혜영)

• **롯데웰푸드_BUY/15만원:** 2Q26P 연결 매출액 1조 1,557억원, 영업이익 647억원으로 영업이익 컨센 약 35% 상회하는 실적 기록. 수익성 개선은 영업·생산·구매 등 다방면에서의 효율화 때문. 동사는 영업 개선 활동 효과로 상반기 누적 약 700억원 비용 절감 효과 밝힘. 이는 원가 부담액 500억원 상쇄.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으로 적정주가 상향. 1) 영업·생산·구매에 걸친 효율화 효과 가시화, 2) 인도 빙과 신공장 안정화 및 우호적인 기상 여건, 3) 해외 가격인상, 4) 환율 하락과 하반기 코코아 투입원가 YoY 하락에 따라 가이드런스 달성 가시성 확대. 중장기적 수익성 레벨의 상향 안정화가 향후 주가 트리거로 작용할 것
(음식료/통신 이다연)

• **닛신홀딩스_Not Rated:** FY1Q27(CY2Q26) 매출액은 1,947억엔, 영업이익은 197억엔으로,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상회. 일본 가격 인상·미국 신제품 효과에도 CY3Q26 중동발 원가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하락 전망. CapEx·감가상각 부담 속 판매량·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가 주가 재평가의 핵심
(음식료/통신 이다연)

• **와이지엔터테인먼트_BUY/6만원:** 영업이익 컨센 상회는 MD 서프로 마진에 유리한 음반원/MD 매출 비중(55%)가 예상치를 상회한 점이 주요. 베몬은 공연 및 MD 중심 성장 지속 중, 2Q에는 공연 없이도 신보 관련 MD 판매 호조로 과거 분기 평균을 상회. 27년은 올해 빅뱅 활동으로 기저 부담이 높으나 신인 보이그룹(4Q 예상) 초기 성과 흥행 시 저연차 IP 기여도 확대에 따른 향후 실적 기대감 상향 가능
(엔터테인먼트 임도영)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투자등급 비율

BUY : 93.5% HOLD : 6.5% SELL : 0.0%

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
- BUY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+15% 이상
- HOLD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5% 이상 ~ +15% 미만
- SELL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5% 미만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

·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·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·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